



‘2004 벤처인 송년의 밤’ 개최

협회는 지난 23일 오후 6시 르네상스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에서 벤처기업 CEO 및 벤처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 벤처인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명 부총리, 중소기업청 김성진 청장, 강원발전연구원 최동규 원장, 벤처윤리위원회김일섭 위원장(이화여대 교수), 한국무역정보통신 유창무 대표 등 벤처기업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전 행사로 열린 제11차 벤처CEO포럼에 참석한 중소기업청 김성진 청장은 다음 날인 24일 발표될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2005년이 벤처기업 재도약 원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송년의 밤’행사는 시종일관 고무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 감사패 전달식



▲ 격려사를 하는 오명 부총리

1부 행사에서는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벤처기업인 252명 등 벤처 관계자 303명을 대상으로 ‘2004년 벤처 10대 뉴스’ 발표가 있었다. 벤처업계의 올 최대 뉴스는 ‘벤처업계 10대 아젠다 발표 및 이현재 경제부총리의 제2벤처 붐 조성 천명’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액토즈소프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벤처 인수합병(M&A), 유망 벤처기업 외국기업에서 싹쓸이’가 차지했으며 벤처업계의 대기업의 거래관행 문제 지적에 따른 ‘벤처기업과 대기업간 상생관계 강화’와 올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부상한 ‘벤처기업 기술유출’이 각각 3·4위로 선정됐다. 뒤이어 2004년 벤처산업 발전과 재도약을 위해 헌신해온 한국무역정보통신 유창무 대표(전 중소기업청장), 강원발전연구원의 최동규 원장, 이화여대 김일섭 교수(윤리위원회 위원장), 한양대학교 한정화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부에서는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벤처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한 오명부총리가 “우리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는 벤처육성 및 기술개발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회정의실현에 있어서도 벤처육성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벤처인의 건강과 건승을 빌고 직접 건배를 제의했다. 뒤이어 가수 유열과 뮤지컬배우 김소현의 축하무대와 상호 네트워킹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 날 행사는 2005년 벤처기업 재도약을 위해 벤처기업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파이팅을 외치며 마무리됐다.



벤처홍보네트워크 송년모임 개최

협회가 후원하는 벤처홍보네트워크(위원장 박근우) 송년모임이 벤처기업 홍보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삼성동에서 개최됐다. 벤처홍보네트워크는 이날 송년모임에서 ▲드레스 코드를 맞춰요(5가지 옷 색상별 조편성) ▲베스트 드레서 및 포토제닉 시상 ▲2004년 벤처 10대 뉴스 및 벤처홍보인 4대 미니 설문 조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했다.

특히, 이날 모임에서는 개인 애장품, 자사 제품, 기념품 등을 모아 경매를 통해 판매하는 이색 바자회도 열렸다.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 벤처리더스클럽(회장 변대규)은 대치동 와이라인에서 2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정문술 초대회장(전 미래산업 회장), 협회 장흥순 회장, 벤처윤리위원회 김일섭 위원장 등 20여 명의 벤처기업인 및 벤처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 협회 장흥순회장은 22일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한국경제 주관으로 소설 <잃어버린 영웅>의 작가 안혜숙씨와 기업가 정신과 벤처산업에 관해 일대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릴레이로 이어지는 벤처인의 따뜻한 마음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 참여기업 줄이어



벤처기업 임직원이 십시일반 참여하는 직장모금운동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에 참여하는 기업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인프라밸리(대표 최영규), 파워컴(대표 김중우), 키코테크(대표 윤명범), 스페이스인터내셔널(대표 신재섭)이 릴레이운동에 참여하여 총 44개 벤처기업이 이웃사랑 실천의 뜻을 펼치게 되었다.

인프라밸리 최영규 대표는 "비록 한 사람의 후원은 작지만 큰 사랑의 결과로 이어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며, 회사 성장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직원 대부분이 참여한 스페이스인터내셔널의 심재석 대표는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 참여로 나눔 도울 수 있는 기쁨을 알게 되었으며, 향후 기부활동 이외에 직접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인간 최선의 삶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한사랑벤처릴레이 운동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협회 오완진 부장(02-6009-4100, 내선 300)에게 문의하면 된다.

